

[업계소식]

◆ 영림목재(주), 인천문화재단 통해 마을문고에 책.결상 후원

(재)인천문화재단 (대표 심갑섭)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그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29일 인천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온 영림목재(주)(대표이사:이경호, 現 인천문화재단 이사)의 후원을 받아 아이들이 독서하고 공부하는 지역마을문고(예꿈마을문고:대표 윤귀영)에 책.결상 세트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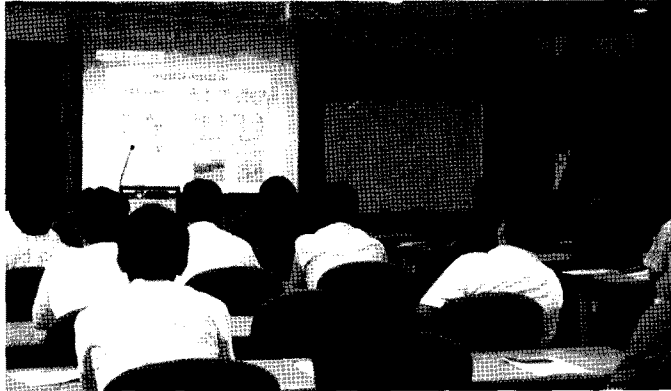


물품 증정식은 지난달 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던 2010 인천펜타포트 페스티벌(주최:인천광역시, 주관:인천문화재단)의 대미를 장식한 오페라 <아이다>의 마지막 공연 전에 약식으로 이뤄졌다.

영림목재(주)의 이경호 대표이사는 “조용히 소문 내지 않고 진행하려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어 조금은 쑥스럽다”며 “기업의 작은 뜻이지만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의 환경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경호 사장은 또 지난 6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후원물품으로 원목 책상과 책장 등 1억원 상당의 가구 129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 이경호 영림목재(주) 대표 경제경영기초교육



영림목재(주) 이경호 대표이사는 지난 9월 1일 인천상공회의소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7차 경제경영기초교육'에 초청되어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전통산업으로서의 목재산업'이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경호 대표는 목재산업의 오해와 진실, 목재산업의 다양화, 인천 지역의 제조업체, 지역산업에의 이해와 지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대표는 끝으로 목재산업을 비롯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상공회의소의 역할에 대해 당부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 일행, 영림목재(주)방문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에 참석한 일행 300여명은 지난 8월 26일 영림목재(주)와 동화기업, 선창산업을 각각 방문했다.

이들은 학술여행 총 8개 코스 중 한국의 목재산업을 시찰하는 일정에 따라 방문한 것으로 이날 영림목재(주)에는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원목에서 제재, 목재가공, 완제품 및 가구 생산에 이르는 종합설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선정되어 이날 이들을 맞았다.

영림목재(주) 이경호 대표이사는 이날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에 위치한 본사 등의 생산 및 시설물을 안내하며 설명했다.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는 산림과학 분야의 연구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국제기구로 5년마다 IUFRO세계총회를 개최, 전 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3,500여명의 과학자가 참석하고 2,150편의 논문이 제출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이다.

올해는 서울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여 행사를 치렀다. 이번 대회는 8월 23일까지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 연세대 제1기 2G SCM경영자과정 입학식

로지스올 서병륜 회장 등 물류업계 리더 모여



SCM 교육에 관련한 국내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최근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2G(Global과 Green)와 SCM과 접목시킨 경영자 과정(주임교수 김태현 경영대학 교수)을 개설하고 지난 9월 1일 제1기 입학식을 가졌다.

SCM에 Global과 Green을 접목시킨 경영자 과정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제1기 교육생들은 물류업계를 비롯해 제조, 유통,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경영자들이 참가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김태현 주임교수는 “이번 과정을 통해 Global과 Green에 대한 트렌드와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Global 시장의 확대와 Green SCM을 확고히 정착 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고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본 과정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훌륭한 교육프로그램과 감사를 초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정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강좌와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이견산업 칠레 현지 법인, 합판 주문량 늘어

이견산업의 칠레 현지 법인인 이견 라아타로의 합판 주문량이 칠레 지진복구사업용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견산업 칠레법인 관계자는 "지난 2월 발생한 칠레 대지진의 피해복구가 시작되면서 건축 기초용 합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며 "반면 진앙지인 컵셉시온 지역에 몰려 있던 합판제조업체들 중 일부도 지진피해를 입어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라 피해를 입지 않은 이견산업 칠레법인으로 발주물량이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루 180㎡를 증산, 540㎡의 합판을 공급하고 있으나 밀려드는 발주물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당 280달러에 거래되던 칠레 내수용 합판가격도 현재 25% 폭등한 1㎡당 35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이견산업 칠레법인 관계자는 지진 피해복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합판수요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합판공급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칠레법인의 2010년 예상매출액도 전년대비 35% 증가한 미화 5000만 달러, 영업이익은 700만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견산업 칠레법인(ELA)은 이견산업이 지난 93년 칠레 라우타로시에 설립한 회사로 현재 100% 지분을 소유한 합판제조 전문회사다.

◆ 칠레 이견라우따로 지역 주요인사 초청하여 식목행사 개최



지난 7월 14일 칠레 이견라우파로 공장 부지에 직원 및 지역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식목행사를 개최하였다.

겨울철 우기입에도 이날은 유난히 화창한 날씨에 진행된 이번 식목행사는 이견 직원들은 물론 주지사, 시장, 경찰서장, 소방대장, 시의원, 각종 단체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직접 식목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외부인사들은 물론 이견 직원들 모두 자기 나무를 직접 식목하는 행사에 만족해하였으며 지역 주요 언론에서도 열띤 취재를 하였다.

금번 행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이견 전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무의 성장과 함께 직원 자신은 물론 향후 ELA가 더욱 훌륭한 회사로 성장 할 것을 기대해 본다.

◆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 2015년 매출 2.2조

2015년까지 연 2만대 생산체제 구축, 글로벌 TOP 도약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가 2015년까지 연 2만대 생산체제 구축 및 매출 2조2천억 원 달성을 통해 '글로벌 TOP 메이커 도약'을 선언했다.

최근 중국 및 내수시장의 호황을 바탕으로 성장 가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글로벌 TOP 메이커 도약을 위해서는 선진시장에서의 레벨-업이 필요하다 판단

하에 침체중인 북미시장 공략과 브라질 및 중남미 신흥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되어 있는 북미시장에서의 전환을 위해서 두산인프라코어는 독특한 집중화 및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중남미 지역에 기술인력을 현지 파견하여 성장세인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을 대상으로 타겟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전년대비 수주가 2배나 늘어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미주전략의 일환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인 IMTS 2010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에 참가해 차세대 기종 및 미주지역 전략 신기종 터닝센터 13대, 머시닝센터 8대 등 21개 모델을 전시하며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선보였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IMTS 전시회는 전세계 119개국 1,800여 업체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공작기계전시회 중의 하나이며, 가공/성형 공작기계, 각종 측정기 및 공구, 자동화 및 제어기술 등의 분야에서 신제품 비교 및 미래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전시회이다.

◆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ISO 14001, OHSAS 18001 인증 획득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이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과 OHSAS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체계적인 EHS 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친환경

경적인 사업장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금번 인증획득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공장장 이하 각 팀장 및 군산EHS팀을 중심으로 TFT를 조직하고 군산공장 EHS경영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3월 EHS경영시스템 구축 Kick-off를 시작으로, 4월에는 협력업체 대표를 포함한 공장 내 모든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으며, 7월 15~16일에는 군산공장 EHS 내부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를 하는 등 EHS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심사에 대비한 다양한 준비활동을 펼쳤다.

이후,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증기관인 BSI Korea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8월 30일 최종 인증서를 획득했다.

향후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은 지속적으로 EHS경영시스템을 점검 및 개선하여, 시스템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11년도 물류 관련 예산 총 16조 279억 원 편성

국토부, 내년 예산안 23.4조원... 철도부문 중점 투자

내년도 물류 관련 예산(안)으로 총 16조 279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8,364억 원(5.0%) 증가한 금액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9월 28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서민주거 안정,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3.4조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3.8조 원보다 0.4조 원 감소한 규모이며 금년도 예산 24.1조 원보다는 0.7조 원 감소한 규모이다.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 23.4조 원 중 SOC는 23.0조 원으로 4대강 살리기에 3.3조 원, 도로·철도 등 여타 SOC에 19.7조 원이 투자된다. 특히, 4대강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의 경우 '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11년은 경제의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SOC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 위기 이전(18조 원 대)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11년:19.7조 원)하였다.

특히 국토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을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도부문의 예산을 '10년 4.2조 원 보다 7.1% 증가한 4.5조 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지원하고, 시설개량 등 운영 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부문에 '10년 예산 8,893억 원보다 2.1% 증가한 9,083억 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적기 개통을 통해 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4대강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사업,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광근의원 대표 발의, 업계 기대감 고조

참고업 등록제를 담고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3일 발의 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 2000년 참고업 등록제 폐지 후 영세하고 부실한 업체가 난립해 업체간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단순 보관 위주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산업 기반이 취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통해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참고업 육성을 위해 창고의 건설 등의 경우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사후 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을 고려해 자금의 보조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 국제물류주선업체 주기적 점검 추진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신고해야



수출입 화물의 보관, 적재 및 트럭, 선박, 항공기 등을 통한 운송을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앞으로 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관할관청(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96년 등록기준 완화 이후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급증('96년 361개→'09년 2,931개)하여 업체간 출혈경쟁, 소비자 피해, 서비스질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매 3년마다 신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토록하여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토록 했으며, 1년이상 장기 휴업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폐업 업체는 등록취소하는 한편,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100만원)는 폐지했다.

한편, 국제물류 네트워크, 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는 정부인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물류 네트워크, 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인증, 지원하기 위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를 도입한 것.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국제물류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업체 인증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업체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국제물류 주선업체 3년마다 주기적 점검 실시

우수업체 인증제도 추진...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물류 주선업체는 앞으로 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관할관청(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또 국제물류 네트워크·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는 정부인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8.31)되어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되도록 법 조항을 개정했다.

1년 이상 장기 휴업 중인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 폐업 업체 역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100만 원)는 폐지한다. 또한 국제물류 네트워크·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인증·지원하기 위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국제물류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업체 인증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업체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 7회 SCM 리더스 포럼' 물류기업 대거 참석

물류신문 주최 물류기업 대표·임직원 대거 참여

지난 8월 24일 충북 충주에 위치한 시그너스 C.C에서 '제 7회 SCM 리더스 포럼'이 개최됐다. '물류산업발전 정책간담회 및 IT를 통한 물류효율화 세미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물류업계 대표이사, 임직원 등 총 38명이 참석했다.

물류신문사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큐백스디지털, 로지다인글로벌, 휴빌론, 싸이버로지텍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오전 골프시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물류산업을 지원하는 IT 신기법' 세미나가 열렸으며 이어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정책



간담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 2010 물류 및 해운시스템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 세계 18개국 항만물류 전문가 총출동... 138편의 논문 발표

지난 9월 15일~17일, 부산시 해운대구 노보텔엠베서더호텔에서 2010 물류 및 해운 시스템 국제학술대회(LOGMS 2010)가 개최되었다.

LOGMS는 지난 5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돼 온 ILS(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Logistics Systems)와 2009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MLOG(International Symposium on Maritime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가 통합돼 새롭게 조직된 학술대회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가 해운과 항만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국제적인 학술과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재단법인 양현과 부산대학교 물류 혁신네트워킹 연구소가 공동으로 준비해왔다. 특히 전 세계 18개국 항만물류 관련 학자들이 총 138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여 업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한국·독일 간 물류 IT 분야 국제공동워크숍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유럽의 물류기술 선진학술연구 현황을 접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미래물류기술포럼과 물류혁신네트워킹연구소에서 각각 '선진물류기술 현재와 미래'와 '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 선진기술'을 주제로 특별워크숍을 진행, 기업체와 관련기관 실무담당자들이 선진 해운항만기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한·중 수출입 물류, 해상육상 복합운송 시대 개막

‘갈아타기’ 없애 하역시간·비용·화물파손위험 감소

한국과 중국 수출입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

양국 화물차(피견인 트레일러)가 수출입화물을 탑재한 채로 카페리 선박에 실려 해상운송한 후 상대국 내 최종 목적지까지 직접 운송하는 door-to-door 복합운송 시스템, 즉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시대가 열리게 된 것.

단, 금번 1단계 협정에서는 피견인 트레일러의 운송만 허용되므로 상대국 항만에 도착하면 당사국 견인차가 이를 연결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9월 6일~7일 이틀간 중국 위해에서 개최된 ‘한·중 물류협력회의’에서 김희국 차관과 왕멍용(翁孟勇) 중국 교통운수부차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합운송방식은 기존 카페리운송(RoRo 방식)과는 달리 양쪽 항만에서 수출입화물을 운송용 트레일러에 옮겨 실을 필요가 없어 하역시간 단축에 따른 신속성 확보, 항만처리비용 절감, 그리고 화물파손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체결한 협정은 10월부터 한국의 인천항, 평택항과 중국 산둥성의 6개항(위해, 청도, 석도 등) 사이 주요 항로에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본 협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이번 1단계에서는 견인차(tractor)를 제외한 피견인차량(trailer)의 운행만 허용되나, 향후 운행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견인차까지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국제물류사회 창립발기인 총회 개최

국제물류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질향상 및 업무개발 등을 통하여 국가물류선진화와 국제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제물류와 무역전문가를 주된 발기인으로 한 ‘한국국제물류사회(韓國國際物流士會: 회장 구교훈)’가 지난 9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무실에서 창립되었다

(창립총회에서 발기인은 총 26명으로 부회장에 김지현 물류관리사협회 수석부회장,

조석연 커스코무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이현선 하니상사 무역부장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최시영박사, 사무국장에는 김종대이사가 겸직으로 선출되었다)

국제물류사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한국국제물류사회'가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국제물류활동에 필요한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민간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국제물류사회로부터 국제물류 전문가로서의 국제물류사 자격증을 수여(授與)받아 국제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진단·평가·상담 및 제안 등 국제물류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시험과목은 국제물류론, 무역실무 등 총 6과목(1차시험 3과목, 2차시험 3과목)이며, 제1회 국제물류사 시험은 2011년 4월에 시행예정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국제물류사회 홈페이지(개설중) 또는 한국물류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clca.or.kr)를 참조하면 된다.

◆ 무역협회, '물류보안 동향 및 인증제도 세미나' 개최

수출입기업 물류보안 대책 마련에 큰 도움 기대

한국무역협회·한국화주협의회(회장 사공일)는 지난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물류보안 전문가, 수출입업계, 학계,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물류보안 동향 및 인증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선급 등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9.11 테러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물류보안 동향을 알리는 한편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물류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AEO, ISO28000 등의 인증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AEO 및 ISO28000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담당자를 초청, 기업이 직면한 물류보안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각 인증의 도입과정 및 운영사례를 소개하여 업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AEO, ISO28000 등 주요 인증제도의 연계 운영방안 및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제고하는 자리로 평가 받았다.

◆ 물류인프라 완벽한 인천이 환황해시대 중심돼야

‘경제수도 인천’ 만들기 시민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제수도 인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로 ‘경제수도 인천’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전문가와 교수, 각급 경제단체, 시의회 의원, 공무원 그리고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수도 인천 건설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 국제물류실무 및 SCM 구축전략 워크샵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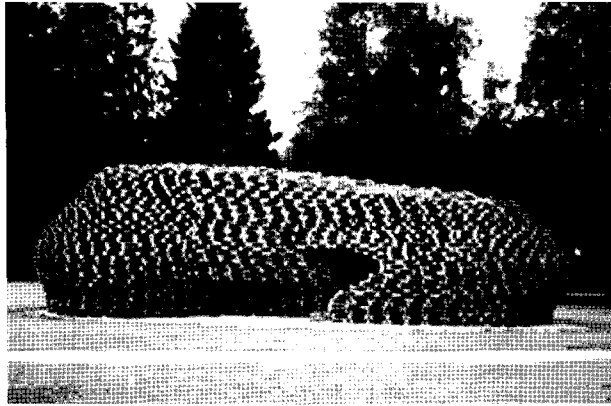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9월 9일부터 10일 1박2일 동안 호남권 제조·무역·유통·물류업체 임직원 대상으로 광양시와 공동으로 백운산수련관(전남 광양 옥룡면 소재)에서 “2010년 제3회 국제물류 실무 및 글로벌 SCM구축전략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는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기업물류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수출입 물류요금체계의 이해 및 물류비 절감방안·수출입기업의 물류클레임 사례와 대처법·SCM 이해 및 구축사례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참석자들이 물류현장(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항)을 방문하는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무역협회는 2010년 상반기 4월 1차 워크샵, 6월 2차 워크샵을 수도권 중심으로 성황리에 마쳤으며, 하반기 이번 3차 워크샵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의 무역업계에도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물류 및 SCM 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수도권 위주의 전문교육을 지방(호남권)으로 유치하여 기업의 국제 물류 경쟁력 제고 및 참가기업 임직원 간 정보 공유의 장 마련, 광양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홍보 효과 거양 및 잠재적 수요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파렛트로 만든 집

독일 오베르트츠도르프(Obertsdorf)에서 개최됐던 알파인 노르딕 스키 챔피언십 미디어룸으로 사용된 파렛트 하우스. 높이 6m, 넓이 8m, 길이 18m의 유기적인 형상을 가진 이 집은 보기완 다르게 의외로 단열성이 높다고 한다.



◆ EPCglobal, 파렛트와 컨테이너 RFID의 새 응용지침 발표

GS1 EPCglobal Gen2 UHF RFID의 표준적용 내용 담겨

최근 GS1 EPCglobal은 어떻게 RFID 기술로 공급체인에서의 파렛트(Pallet)와 컨테이너를 식별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새 지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운수용품(파렛트와 같은 물케이지 튜브, 플라스틱 화물 케이스, 운반 케이스와 보조재료 케이스)에 있어 GS1 EPCglobal Gen2 UHF RFID의 표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련의 건의를 제기하고 있다.

GS1 EPCglobal은 재활용이 가능한 운수용품에서의 관심 품목(Returnable Transport Item Interest Group)에서 대형 제조업체, 유통업체, 운송업체, 솔루션 공급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이 지침을 편성하였는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여러 측면에서 상업적 응용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독자에게 파렛트(Pallet) 관리에 따른 식별과 기타 재활용 가능한 용품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 태그 사용자의 메모리 속 데이터를 리딩하고, 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3. 태그에 대한 권장 위치 지정으로 데이터 수집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동시에, GS1 EPCglobal에서는 운수물품 라벨의 환경 테스트 실시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수동의 Gen2 UHF RFID 라벨 테스트를 위해 표준적인 지표의 색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GS1 EPCglobal에서는 RFID CAT 라벨의 배치와 코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RFID CAT 라벨은 원양 컨테이너, 항공 컨테이너, 궤도차량 및 연계 운송의 컨테이너를 추적하는데 사용되고 있다.